

“함박도 北땅이나 南땅 이냐” 산림청장 “부처 간 협의할 것”

등기부상 산림청 소유...국방부 “NLL 북쪽 맞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위치한 함박도의 남북 관할권 논란과 관련한 정부 부처 간 협의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2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함박도는 등기부상 산림청 소유인데 북한 땅이나 아니면 우리 땅이냐는 김재원 예결위위원장의 질의에 “부처 간 다시 한 번 협의 하고 말하겠다”고 답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국방부와 협의해 말하겠다”고 했고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은 “서해 5도에 대한 일반적인 경비는 하고 있는데 영토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 측과 협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등기부상등분에 따르면 함박도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이라는 주소로 대한민국 산림청이 소유하고 있다고 표기돼 있다.

하지만 부처 협의 결과 함박도가 북한 관할이라는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방부가 함박도에 대해 북한 관할이며 우리 정부가 행정주소를 부여한 것은 오류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함박도는 분명히 (우리 소유가 아니고) NLL 북쪽에 있는게 맞다”며 “국토부 자료에 이 부분이 잘못돼 있다”고 말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역시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쪽에 있는

도서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는 “함박도는 NLL 이북에 있는, 북한이 위치해 있는 도사이기 때문에 (주소지가) 정리될 필요가 있다”면서 “그 작업은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언제부터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분명치 않기 때문에 그 사안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렇지만 한동안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의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강화도민들이 함박도에 가서 (어업) 활동을 했다고 한다”며 “북한군 기지가 (함박도에) 들어와 있는데 정부가 확실하게 확인해 달라”고 했다.

앞서 이날 일부 매체는 우리나라의 행정 주소가 부여된 함박도에 북한군 관련 시설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군은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윤호 기자



함께 지리한 문희상 의장과 여야5당 대표

문희상 국회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채에서 열린 여야5당 대표 오찬 간담회인 초월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동영 민주당, 손학규, 바른미래당,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문 의장,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사)국회물포럼 물순환 사례 전시회 및 세미나 개최

(사)국회물포럼(회장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 국회의원회관 제2로비 및 제1소회의실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재미있는 물문화와 물순환 사례 전시회와 세미나’를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의 공동주최와 서울대학교 지속가능물관리센터의 주관으로 개최한다.

물문화와 물순환 사례 전시회는 2일 월요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2로비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진행되며, 주승용 국회부의장,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 박천규 환경부

차관 및 관련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이번 전시회는 다양한 기관에서 참여를 하는데, 환경부는 2016년에 전국 지자체에 공모하여 선정된 5개 물순환선도도시(광주, 강해, 대전, 안동, 울산)에서 지자체별로 조성중인 물순환 선도도시의 내용을 전시한다.

또한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이루어지는 물문화와 물순환 사례 세미나는 1부: 우리 선조들의 지혜로부터 배우는 물문화 소개와 2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시민들이 함께 물

로 인해 행복하고 재미있었던 사례들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승용 부의장은 “이번 전시회와 세미나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물관리기본법에 근거한 물순환 및 물관리 등 물에 관한 국민의 이해 증진 및 지식보급 등을 포함한 물문화 육성을 위해 진행되는 것이다”며 “이번 1회 물문화행사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행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 기자

‘조국 딸’ 1저자 논문 논란 최기영 과기부 후보자 “연구 윤리 지켜져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의학 논문 1저자에 대한 질문 공세에 “잘 살펴보지 못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 딸의 논문의 연구윤리를 묻

는 질문이 쏟아졌다. 국가 연구개발(R&D)을 총괄하는 자리인 과기정통부 장관의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연구 최근 논란이 되는 조국 후보자 딸의 논문에 대한 ‘연구윤리’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조 후보자 딸 조모씨(28)는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제 1저

자로 ‘출산전후 허혈성 저산소뇌 병증(HIE)에서 혈관내피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란 영어 논문을 출판했다. 논문 출판을 위해 조씨는 2007년 7월23일부터 8월3일간 약 2주간의 인턴 기간을 통해 실습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문 1저자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국가 연구개발(R&D)을 책임져야 할 자리에 앉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최 후보자는 “다른 후보자에 대해 얘기하긴 어렵다”면서 “다만 연구 윤리는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가 전공하는 분야를 벗어났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기본적인 저자에 대한 중요한 판단은 연구기관이 한다”고 말했다.

뉴스1

부산출신 ‘조국’ 임명 PK지역 ‘반대 63.9% vs 찬성 34.4%’

조국 후보자의 고향인 PK(부산·경남·울산)지역에서 그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 같은 조사보다 반대 여론은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지역 민심은 조 후보자에 대한 ‘반대’가 많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는 tbs 의뢰로 지난달 30일 전국 19세 이상 PK지역 유권자 79명(전국 504명)을 대상으로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2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대’ 63.9%, ‘찬성’은 34.4%를 각각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29.5%포인트나

높다.

이번 조사에서 반대는 1차 조사 대비 4%포인트 감소했고, 찬성은 3.5%포인트가 늘었다. 지난달 28일 발표된 조사에서 PK지역의 반대는 67.9%, 찬성은 30.9%를 각각 기록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 전국 평균은 반대 54.3%, 찬성 42.3%를 각각 기록, 전국에서도 반대 여론이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해광과 출신인 조 후보자는 지역 친문을 대표하는 인사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당시 지역의 기대를 받았다.

하지만 조 후보자 자녀가 재학생인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논란을 시작으로 당시 장학금을 지급한 교수가 부산의료원장으로 부

임하면서 조국-부산의료원장-오거돈 부산시장 3각 커넥션 의혹 등이 제기됐다. 최근 검찰이 부산시, 부산의료원, 부산대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은 각종 논평과 기자회견을 통해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하고 있으며 지난달 30일에는 황교안 당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대거 부산을 방문해 조 후보자를 규탄하는 등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중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광고 직통 ☎ 062)224-5800
팩 스 222-5547

www.nhis.or.kr

“건강보험, 월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9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에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므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18만원 혜택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연도	고소득층	중위	3분위	2분위	저소득층
2016년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2017년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호남신문 공익 캠페인

“**딱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입니다**”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다 함께 약속해주세요.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 원칙의 안전 보강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 직장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임박해 되었습니다.
- 장시간근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